진부한 표현 그대로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저물고 한 주가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은 달려가고. 결국 레니에스 성일이 성큼 다가왔다. 레반 부인의 배려로 밀라는 내내, 그리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부인의 별장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라일라의 만류로 레니에스 성일 당일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별장 안에서만 쭉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레반 부인과 실리카가 두 번 밀라를 찾아왔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신경을 써주는 레반 모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만 쌓여갔다. 반면 언젠가 한 번 시간을 내어 얼굴을 보러 오겠다던 밀라의 부모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밀라의 부모는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눈꼽만큼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음이 틀림없었다. 라일라는 속상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오히려 밀라가 라일라를 위로해주어야 눈가를 콕콕 찍던 손수건을 집어넣고 훌쩍거림을 멈추었다. 따지자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으나 밀라는 무척이나 정신이 없었다. 연이어 찾아온 소식에 그녀의 하루 기분과 평온함이 위아래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언니 엘레니아의 유품과 관련한 소식이었다. 밀라는 눈을 뜬 후 정신을 차리자마자 일레인의 오랜 ‘동료들’에게 소식을 보냈다. 혹여나 황제에게 조금이라도 단서를 흘릴까 두려워 밀라는 몇 번이나 목적지를 세탁하여 서신을 전달했다. 강한 마법이 걸려 있는 그 편지는 다행히도 받아야 할 이의 손으로 올바르게 들어간 모양이었다.

[ 걱정마세요. ]

마법으로 이루어진 전령이었다. 한 줄도 안 되는 짧은 문장이 화사한 편지지 위로 떠올랐다가 금세 먼지처럼 흩어졌다. 밀라는 쓸모를 다한 편지지를 능숙하게 태우며 가슴에 얹어 둔 짐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일레인과의 고리를 하나 끊어주었다. 일레인으로서의 걱정을 해결하자 남은 것은 밀라의 문제였다. 그녀는 ‘진짜 밀라’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에 충실하고 싶었다. 일레인은 자신의 언니를 사랑하였으나 자신의 자매가 어깨에 올려주고 간 짐까지 사랑할 수는 없었다. 20년이 넘는 고행 끝에 해방되지 않았는가. 악녀의 동생도, 반역자도 아닌 적법한 신분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삶. 어쩔 수 없이 떠밀리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코 앞에 놓여있다.

“1년 전에 있던 이야기부터 해줄게.”

두 번째는 밀라 레첸스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다. 실리카는 약속대로 밀라가 현재 논란에 휩싸이게 된 이유를 하나씩 조심스레 늘어놓았다. 물론 이 또한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의외의 내용이었다. 실리카가 말해주던 진짜 밀라의 과거를 하나 둘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리하며 그녀는 에브릴 무도회로 향할 준비를 이어갔다.

“밀, 너는 네 스스로가 마법사란 거 알고는 있지?”

“네. 일어나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을 뿐이지 기본적인 상식이나 생활 지식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래. 너는 마법사야. 거… 심지어 꽤 뛰어난 마법사였어. 너와 나는 로시난테 아카데미의 마법학부를 무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동창이니까 실력으로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 아무튼…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모교의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지. 학부 시절부터 목표로 하던 자리라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나. 로시난테의 교사직은 존경받는 자리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에 밀라는 의문을 가졌다. 실리카는 로시난테의 선생이 아닌 군인이자 황제의 마법사로서 일레인과 대면했었다. 군에 소속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으나… 명망 높은 로시난테의 정식 교사직과 비교하자면 다소 부족한 자리임은 틀림없었다. 졸업을 하자 마자 로시난테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된 실리카가 어떤 연유로 황제의 마법사가 된 걸까?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다.

“실리카는 그럼 지금도 선생님인가요?"

"...그게... 아니. 우리는 작년에 쫓겨나다시피 교직을 그만두었어."

너는 모함을 받고, 나는 밉보여서. 짤막한 한마디에 은은한 분노가 묻어났다. 두 사람은 뛰어났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마법사라고 해도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인력은 아니었다. 로시난테 아카데미의 교사 이른 너도나도 원하는 메리트 있는 자리였고, 그 자리를 탐내는 이들 또한 많았다. 노력한 시간은 길었으나 내쳐지는 일은 순식간이었다. 특히 젊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며 가문이 감싸 돌지 않는 두 어린 여자라면.

“외부 마법 실습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어지간해서는 쉽게 보기 힘든 마물들이 실습지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

“… …”

“밀라 네가 맡은 반의 학생들이 말려들어서 다치거나... 사망했어. 마법사는 나라에서 관리할 만큼 희귀하고 귀중하니까 난리가 났었지. 게다가 마물들은 우연이 아니었어. 의도적으로 마물을 불러온 흔적과 흑마법의 마력이 남아 있었으니까… 흑마법으로 마물을 부렸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후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였다. 당시 사고 현장에 남아 학생들을 끝까지 지키던 젊고 만만한 한 교사에게 모든 원망과 책임이 향했다. 마침 그녀가 다양한 마법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점이, 특히 흑마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전적이 있다는 사소한 점이 마치 큰 흠처럼 부풀려졌다. 밀라 레첸스가 흑마법을 연구하여 마물을 불러왔다! 곧 사고의 책임이 밀라 때문이라는 말을 넘어서 그녀가 흑마법으로 마물들을 불러모은 건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의혹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아니라고 하여도 마법사가 아닌 이들 중 믿는 이는 거진 없었다. 매일매일 손가락질 받는 나날이 이어졌다. 소문 속에서 그녀는 학생들을 잡아먹은 악한 흑마법사가 되어있었다. 결국 밀라는 반 강제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로시난테 아카데미의 선생님 자리를 내려두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실리카는 걱정스레 밀라의 안색을 살폈다. 예상대로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희게 질려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이처럼 보이는 안색이었다. 현재의 밀라가 듣기에도 진짜 밀라가 겪은 일은 상당히 안타까웠고 동시에 충격적이긴 했으니. 그러나 그녀가 질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마물을 조종한다고?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은…’

일개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 일은 기묘한 힘을 가진 황제나 혹은 황제의 힘을 나눠 받은 이들만이 가능하지 않았던가? 강한 흑마법은 마물을 원하는대로 부릴 수 있다, 이런 세간의 낭설과 달리 흑마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마물을 조종할 수는 없다. 토끼와 인간이 같은 당근을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토끼를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해야 할까? 마물과 비슷한 종류의 기운을 이용할 뿐 실질적으로 마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헬리스 황제처럼 신묘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밀라는 저번 생과 짧은 이번 생을 통틀어 이와 같은 힘을 몇 번 보지 못하였다. 이마저도 그녀의 언니 엘레니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고 말이다. 그녀는 괜히 제 팔을 문질렀다. 밀라로서의 이번생마저 생각치도 못한 곳에 황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흑마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마물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어느정도 학식이 있는 마법사라면 다 아는 사실이야. 그치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당시 동료 교사였던 실리카는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는 제 소꿉친구를 보며 의문의 목소리를 내었다. 흑마법이 마물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외면이었다. 실리카는 로시난테의 눈엣가시가 되었고 멀지 않아 선생님이라는 직함을 잃게 되었다. 밀라가 쓰러져 침상에 영영 누워버리기 몇 달 전 이야기였다.

‘괜찮아요, 비난 받는 건 익숙하니까요. 적어도 죽이러 오겠다고 날뛰는 이는 없으니 일레인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네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아니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뿐일까?

기억을 되짚는 일이 끝남과 동시에 밀라는 에브릴 무도회에 참여할 준비를 끝마쳤다. 실리카는 이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장갑을 착용한 밀라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옷장을 열어 적당한 모자 하나를 꺼냈다. 챙이 아주 작지 않은 모자였다. 그녀는 단정한 외출용 모자를 털어 깔끔하게 땋아 올려 묶은 머리 위로 살포시 올리고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다시 정리했다. 덕분에 얼굴이 어느정도 가려졌다. 라일라의 도움으로 마무리 단장을 마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실리카가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간만에 생기 있는 모습 보니까 좋네.”

밀라는 특유의 차분한 미소로 그의 말에 응답해주었다.

\* \* \*

마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만 사용이 가능하나, 일단 한 번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익히면 일반 사람들을 능가하는 강함을 보여준다. 마법사의 수는 항상 적었으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 분의 일을 해내기도 했다. 그러하기에 건국 이래로 마법사는 항상 귀중하면서도 위험한 존재였다. 엘하임 제국은 마법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들을 통제 하에 두고 싶어했다. 강한 힘을 가진 마법사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유한 방식으로 이들을 손쉽게 파악하는 방법. 오랜 전통을 지닌 마법사들의 연회, 에브릴 무도회가 생겨나고 유지되는 이유였다. 제국민의 신분을 지닌 마법사들이라면 적어도 4년에 한 번 연회에 참여하여 꾸준히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보고 할 의무가 있었다.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4번 이상 연이어 연회를 불참할 시 제국법으로 강하게 처벌받게 되니 더더욱. 그러나 에브릴 무도회 참여가 꼭 번거롭고 소모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손해가 되지 않고 무언가 얻을 것이 있으니 오랜 기간 반발 없이 이 기묘한 신고제가 이어져 오지 않았겠는가.

“도착했어, 밀.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들어가야 해.”

에브릴 청사 근방에 도착하자 마차가 멈춰 섰다. 수도 곳곳에 위치한 청사는 마차 통행 금지 구역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턱을 괴고 골똘히 무언가를 궁리하던 밀라는 티 나지 않게 화들짝 놀라며 마차에서 사뿐히 걸어내렸다.

“네, 기억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 정말… 달라진 게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나에 대한 건 홀랑 잊었으면서 이런 건 은근히 다 기억한다니까?”

농담 따먹기를 하 듯 가벼운 어조였으나 실리카의 몸짓과 눈빛 하나하나에 은근한 긴장이 묻어나왔다. 밀라는 처음으로 그를 안쓰럽다고 느끼며 조용히 손을 뻗어 등을 도닥여주었다. 어딘가 어설픈 행동이었으나 덕분에 방금 전보다는 안정이 되었는지 실리카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휴, 됐다. 가자…! 어서 할 일만 후딱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카드 게임이나 해야지.”

긴장한 모습은 어디로 숨겼는지 그는 평소의 밝고 깐죽거리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밀라는 표정 하나 흐트러트리지 않고 소꿉친구의 곁을 따라 걸었다. 근 이십 몇 년 만에 마주하는 에브릴 청사가 오래 전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